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12년 2월 9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문의처 : 정책기획국 정책총괄팀 차장 이환석

Tel : 759-4424 Fax : 759-4485 E-mail : hslee@bok.or.kr

공보실 : Tel (02) 759-4015,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정책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고용 등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이 계속 부진하였다. 신흥시장국 경제의 성장세는 수출 둔화 등으로 약화되는 모습을 이어갔다.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지역의 국가채무문제 및 주요국 경제의 부진 지속,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기비연율, %)

	10.3/4	4/4	11.1/4	2/4	3/4	4/4
전세계 ¹⁾	3.7	4.7	3.7	3.2	3.3	3.1
선진국 ¹⁾	2.1	1.6	1.3	0.8	1.9	1.2
미 국	2.5	2.3	0.4	1.3	1.8	2.8
유로지역 ²⁾	2.1	2.0	2.4	1.6	1.3	..
일 본	2.0	0.1	-6.6	-2.0	5.6	..
신흥시장국 ¹⁾	5.9	8.9	6.9	6.3	5.2	5.5
중 국 ²⁾	9.6	9.8	9.7	9.5	9.1	8.9

유럽국가 CDS 프리미엄

(기말 기준, bp)

	11.11월	12월	12.1월	2.8일
그리스	8,112	8,786	6,061	6,645
포르투갈	1,066	1,082	1,502	1,174
스페인	407	380	374	353
이탈리아	480	484	414	370
아일랜드	718	724	620	558

주: 1) IMF World Economic Outlook(12.1월)
 2) 전년동기비
 자료: IMF, Bloomberg

자료: Bloomberg

[실물경제]

- 국내경제를 보면, 내수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데다 수출도 감소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그러나 고용 면에서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수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률은 해외 위험요인의 영향 등으로 당분간 하방위험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점차 장기추세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물경제지표

(전년동기대비, %)

	2010	2011	11.2/4	3/4	4/4	11.9월	10월	11월	12월	12.1월
GDP 성장률	6.2	3.6	3.4	3.5	3.4	-	-	-	-	-
GDP 민간소비	4.1	2.2	3.0	2.0	1.2	-	-	-	-	-
소매판매	6.6	4.1	5.7	4.4	1.5	2.8	2.2	0.5	1.5	..
(S.A, 전기비)	-	-	(0.2)	(2.3)	(-2.2)	(-3.2)	(0.6)	(-0.6)	(-0.2)	(..)
GDP 설비투자	25.0	3.8	7.5	1.0	-3.4	-	-	-	-	-
설비투자지수	25.1	0.5	4.8	-3.5	-5.4	-4.1	-11.2	-3.2	-2.1	..
(S.A, 전기비)	-	-	(3.0)	(-0.8)	(-7.3)	(-2.0)	(-11.5)	(8.0)	(0.5)	(..)
GDP 건설투자	-1.4	-6.5	-6.8	-4.6	-4.0	-	-	-	-	-
건설기성액	-3.3	-6.9	-6.6	-8.4	-1.1	-0.9	2.7	-6.6	0.5	..
(S.A, 전기비)	-	-	(3.5)	(-5.8)	(6.0)	(4.8)	(2.8)	(-7.3)	(14.8)	(..)
수출(통관)	28.3	19.6	18.7	21.4	10.0	18.0	7.6	11.6	10.8	-6.6
(일평균, 억달러)	(16.8)	(20.2)	(20.8)	(20.3)	(19.9)	(21.1)	(20.7)	(19.2)	(20.0)	(18.9)
제조업 생산	16.7	7.1	7.4	5.1	5.1	7.0	6.5	6.1	2.9	..
서비스업 생산	3.9	3.2	3.3	4.2	2.5	3.8	3.4	2.7	1.6	..
취업자수 증감 ¹⁾	323	415	402	363	474	264	501	479	441	..
(공공부문 ²⁾ 제외)	395	424	436	353	485	263	488	528	438	..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감, 천명(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물 가]

- 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도로부터의 기저효과 등에 기인하여 3.4%로 낮아졌고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보다 하락하였다. 앞으로 수요압력 완화 등이 물가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불안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

	(전년동월대비, %)				
	11.9월	10월	11월	12월	12.1월
■ 소비자물가	3.8	3.6	4.2	4.2	3.4
(전월비)	(-0.1)	(-0.2)	(0.1)	(0.4)	(0.5)
▪ 석유류	16.3	17.0	16.0	11.0	7.0
■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3.3	3.2	3.5	3.6	3.2
■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2.6	2.6	2.8	2.7	2.5

- 주택시장을 보면, 수도권에서 매매가격은 약세를 지속하였고 전세가 가격은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다. 지방에서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전월과 비슷한 폭으로 상승하였다.

	(전월비, %)									
	11.9월		10월		11월		12월		12.1월	
■ 주택 매매가격	0.5	(0.7)	0.4	(0.5)	0.4	(0.6)	0.2	(0.2)	0.2	(0.2)
▪ 서 울	0.0	(-0.1)	0.0	(-0.1)	-0.1	(-0.2)	-0.1	(-0.2)	-0.1	(-0.2)
▪ 경 기	0.1	(0.1)	0.1	(0.1)	0.0	(0.0)	-0.1	(-0.1)	-0.2	(-0.2)
▪ 지 방	1.1	(1.5)	0.9	(1.2)	0.9	(1.3)	0.6	(0.7)	0.5	(0.6)
■ 주택 전세가격	1.4	(1.8)	0.9	(1.1)	0.5	(0.7)	0.1	(0.1)	0.2	(0.3)
▪ 서 울	1.7	(2.2)	0.9	(1.0)	0.2	(0.3)	-0.1	(-0.2)	0.0	(-0.1)
▪ 경 기	1.8	(2.1)	1.0	(1.1)	0.0	(0.0)	-0.3	(-0.4)	-0.1	(-0.1)
▪ 지 방	1.2	(1.6)	1.0	(1.3)	0.9	(1.3)	0.5	(0.6)	0.6	(0.7)

주 : () 내는 아파트 기준
자료 : 국민은행

[금융시장]

-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소 완화되면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큰 폭으로 유입됨에 따라 주가는 상승하고 환율은 하락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계속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하였다.

	<u>11.9월</u>	<u>10월</u>	<u>11월</u>	<u>12월</u>	<u>12.1월</u>	<u>2.8일</u>
■ KOSPI지수 ¹⁾	1,769.7	1,909.0	1,847.5	1,825.7	1,955.8	2,003.7
■ 원/달러 환율 ¹⁾	1,178.1	1,110.0	1,143.0	1,151.8	1,123.3	1,115.8
■ CD(91일)금리 ¹⁾ (%)	3.58	3.57	3.55	3.55	3.54	3.53
■ 국고채(3년)금리 ¹⁾ (%)	3.55	3.51	3.38	3.34	3.38	3.44

주 : 1) 기말기준

[향후 정책 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국내외 금융·경제의 위험요인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견실한 경제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의 중심선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